

기·획·특·집

자원봉사 경제가치는 얼마 ?

7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기름 걷어냈는데...

충남도청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태안 앞바다의 기름 방제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사고 발생 46일 만인 21일 현재 74만3380명이다. 이들은 유출 기름 4153t과 폐기물 2만7445t을 수거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무엇보다 피해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자원봉사의 '열매'는 달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 '사회적 온도'를 높일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원봉사 수준은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는다.



◇자원봉사는 '행복 나눔 품앗이'=자원봉사란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 시간·자원·능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의 주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봉사의 성격이 공공성을 띤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이웃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자원봉사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가치 규범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는 사회의 잠재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행정자치부 자료(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3조1710억원에 달한다. 2004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41%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 22개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수치 1.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원봉사는 봉사자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분석도 있다. 연세대 의대 정신과 민성길(세브란스병원 전문의) 교수는 “자원봉사같이 남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돼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자원봉사 시민단체 ‘볼런티어 21’ 오영수 사업국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자원봉사 선진국은 개인별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는 학교나 기업, 종교단체 등 조직에 속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언론도 한 몫했다. 중앙일보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사회 캠페인을 펼치는 등 1994년부터 자원봉사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95년 5월 교육부도 중·고교 학생들이 연 40시간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

록 의무화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과제=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5%(2005년)다. 정부는 2013년까지 선진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자원봉사센터 248곳을 세웠다. 이를 두고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원봉사 영역에 정부의 개입이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 정부 역할이 커지면 유연성·자율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일화 상임공동대표는 “자원봉사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실정”이라며 “자원봉사자의 자기 만족감이나 자아실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자원봉사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미나 문화 등을 자원봉사와 연결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가 주목받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교실’을 열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